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⑯ 비로자나삼천불도

▶ 한줄 요약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된 〈비로자나삼천불도〉는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있고, 주위에 약 8000구의 화불이 담겨진 고려불화다. 이 불화는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을 도상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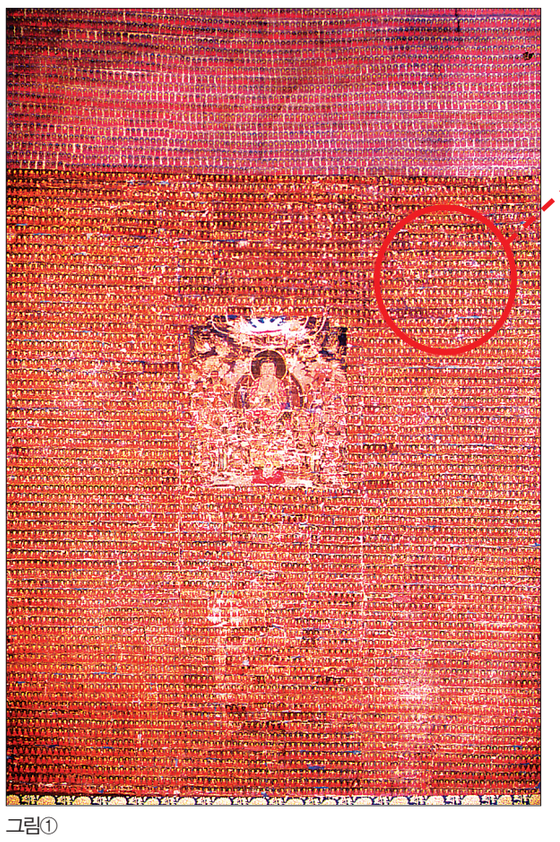
# 8천 화불로 장엄된 깨달음 세계

'온건히 깨달은 상태' 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 탐진치(貪瞋癡)가 소멸되면 무엇이 남는가? 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는 마음' 만 남는다. 주지하듯이, 이 '아는 마음' 을 각성(覺性) 또는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데 반응하지 않는다. 무색무취의 이 희한한 마음은 부동(不動)이다. 온갖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으나, 온갖 사물과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허공에 가득할 뿐이다.

### 깨알 같은 무수한 부처님들

이렇게 '허공에 가득한 불성' 을 그림으로 나타낸 놀라운 고려불화가 있다. 바로 〈비로자나삼천불도〉(일본 고베시립박물관 기탁보관)이다.(그림1)

약 20년 전, 일본 현지 조사 당시 고베시립박물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요지는 "아무래도 한국 불화인 것 같은데, 급히 좀 봐달라는 것"이었다.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참으로 수많은 불화를 조사했지만,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매우 특이한 형식이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노랑과 빨강 점들이 화면 전체에 무수히 찍혀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 빽빽한 점들이 모두 깨알 같은 부처님들이 아닌가!(그림2)



그림①



그림②

**고베博 보관 〈비로자나삼천불도〉**
**비로자나불 주위에 8천화불 담겨**
**지혜와 자비, 동체된 모습을 표현**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 의미**

그림①. 그림1. 일본 다나카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돼 있다.

그림②. 고려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의 부분. 무량무변의 깨알 같은 화불들이 인상깊다. 그림 안에는 8000구에 달하는 화불들이 담겨있다.

화면 한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앉아 있고, 좌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그 주변으로 문수와 보현을 제외한 6대보살 · 사천왕 · 십대제자 · 팔부중의 성중이 에워싸고 있다. 비로자나부처님 몸에서 6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광배로 표현했고, 머리 위에는 커다란 천개가 드리웠다. 그리고 육계 보주에서 두 줄기의 서기(瑞氣)가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간다. 그리고 주변 바탕으로는 뭉게뭉게 구름같은 서기가 한가득 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의 사각 구획 주변으로, 나머지 전체 화면을 메우고 있는 것은 무수한 작은 부처님들이다. 한 가운데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화면 가득한 무량한 화불(化佛)들이 결국 '모두 하나' 임을 천명하고 있다.

### 8000구의 화불, 결국 '하나'

지권인이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두 손을 가슴에 하나로 모은 모습의 손 모양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 의 통합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 불화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법신불은 온 우주에 두루 편재(遍在)한다' 는 것이다. 불성은 인간 · 동물 · 자연 · 바다 · 별 · 우주 등 일체 처처에 있는데, 그 불성(법신)과 대상(응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不二)' 라는 것이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 지구와 우주, 유(有)와 무(無), 안과 밖, 겉과 속이 일체이고, 일체가 불성이고 불성이 일체이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법신 · 보신 · 화신(또는 응신)은 하나"라는 '삼신귀일(三身歸一)' 의 법칙을 설파한다. 물론, '불성의 편재' 는 화엄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진리이겠다.

화면 가득 충만한 초미니 부처님들을 세어보니 약 8000구(軀)에 달한다. 현재 가로 95구의 화불이 세로로 84열 확인된다. 전체 불화가 세로 1m 96cm이고 가로 1m 33cm의 크기이니, 가운데 주존불의 구획(가로 · 세로 약 40cm)을 제외한 나머지, 즉 화면 면적의 약 70%가 깨알 같은 화불들로 매워져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명이 〈일만삼천불도〉인 것으로 보아, 약 5000구의 부처님들이 더 있었을까하는 추정도 해본다. 불화의 보수 상태와 구전(口傳)된 제명으로 보아 본래 화폭의 크기는 훨씬 컸으리라 생각된다.

본 불화의 표현과 직결되는 〈화엄경〉의 '화장세계품' 내용 중에서 대표적 문구를 발췌하여, 불화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화장 장엄 세계의 무수한 띠끌 있네 / 낱낱 띠끌 가운데 법계를 본다 / 광명 속에 부처님이 구름 모이듯 / 이것은 온 세상에 자재하는 부처님이다.**

또 무수한 작은 부처들이 비로자나(또는 노사나)의 변화신 또는 분신임을 강조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청정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 장엄을 갖춘 속에 그 모습 드러내고 / 변화 분신 무리 에워 두르고 / 일체의 세계해 모두 가득 채우네 / 존재하는 화불 모두 환영같아서 / 오신 곳을 구하여도 알 수가 없네 / 부처님 경계의 위신력으로 / 일체의 세계 속에 이렇듯 화현하시네**

이렇듯 화장장엄 세계의 무대가 되는 향수해(香水海)에는 "화장세계의 비로자나(毘盧遮那)와 시방화불(十方化佛) 및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한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한다. 즉 비로자나와 변화 분신의 화불이 일체 출현하는 장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 '동체'는 지혜, '대비'는 자비

다시, 글 첫머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깨달은 상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금 그 상태를 '그림' 으로 묘사한 작품을 보고 있다. 그러면, '글' 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물론, 모든 불교경전과 모든 불교미술이 깨달은 상태와 그리로 가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겠다. 다양한 표현 중에서도 본 작품과 직결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설명한다. 탐 · 진 · 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에 들었다' 고 한다. 선종에서는 '바탕자리 또는 보는 놈과 하나가 되었다' 고 하기도 하고, 〈화엄경〉에서는 '법신과 계합했다' 라고 한다.

아미타 신앙에서는 '본향(本鄕, 존재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고, 또 철학자들은 '우주인식과 하나가 되었다' 라고도 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동체대비(同體大悲)' 라는 용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초기불전 〈붓다차리타〉의 '깨달음의 순간' 등에서부터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동체' 란 '깨달음과 하나가 된 것' 을 말하고, '대비' 란 '하나가 되자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났다' 는 것이다. 이것은 불성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 지혜와 자비를 말한다. 동체는 지혜(빤야)와 하나됨을 말하고, 하나가 되어 회광반조하니 만물이 나였고 내가 만물이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한 저들, 또 다른 나에 대한 안타까움(자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불성이 되고, 불성을 둘로 나누면 지혜와 자비가 된다. 불교미술에서 '지혜' 는 '부처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자비' 는 '보살' 형상으로 표현된다. 본 불화는 반야지혜와 동체가 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탐 · 진 · 치와 결별하면, 반야지혜와 '동체' 된 마음만 남는다. 이러한 깨달음의 마음을 쉽게 '아는 마음' 이라고도 하는데, 그저 '아는 마음' 만 온 천지에 가득할 뿐인데, 그 존재 방식이 인간세계에서 결코 못 보던 거다.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여(如如)하게'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절로 튀어나온다. 여여하게 그냥 있다. 투명하게 아는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다. 부동(不動)의 마음, '부동지(不動地)' 가 이것이구나! 인간 차원에서의 '아는 마음' 인 '마노(mano)' , 즉 '의(意)' 또는 '의식(意識)' 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 널뛰듯 이리저리 매 찰나 오온(五蘊)으로 반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불성의 마음은 '부동' 이고 '청정' 하고 '여여' 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정불성(無情佛性)' 이라고도 표현한다.

안팎으로 대상을 비추어 알지만 결코 대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모습은 연잎 위의 물방울에 비유되기도 한다. 맑은 물방울은 연잎과 함께 있지만, 반연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또르르 구른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